

태권도원 상징물 '태권도의 꽃' 준공

태권도진흥재단,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으로 랜드마크 역할 기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27일 11시, 태권도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태권도의 꽃'의 준공행사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열린 준공행사에는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동혁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소년팀장 황인홍 무주군수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고봉수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이승완 국기원 원로평의회 의장님을 비롯 김용채 박현섭 송봉섭 조영기 이규형 원로위원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태권도원 상징 조형물'은 국기 태권도를 상징하면서 태권도원을 대표하는 조형물로 2년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 후보작 3점을 선정, 국민 선호도조사와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김기태씨의 작품 '태권도의 꽃'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준공식에 공개된 '태권도의 꽃'은 태권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태권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차기 처럼 휘둘러져 올라가는 세 개의 띠와 삼태극으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높아져가는 태권도의 위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7일 11시, 태권도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태권도의 꽃'의 준공행사를 통해 공개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의 상징물이 아닌 국기 태권도의 상징물로 함께 자리하길 태권도 원로님들과 태권도인들이 함께 축하하게 되어 기쁘다"며 "세계 태권도 성지에 대국민 참여로 선정된 '태권도의 꽃' 작품이 새로운 태권도원의 랜드마크로 많은 태권도인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태권도 상징조형물 '태권도의 꽃'은 태권도원 내 국립태권도박물관 앞에 위치해 있어 태권도원 입장객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화 힐링 '남원아트센터' 개관

31일 개관식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행사 진행

남원시가 구)KBS남원방송국에 시민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남원아트센터가 오는 31일 오후 6시30분에 개관식을 시작으로 남원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남원아트센터는 시민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최근 시설물 내·외부의 정비와 운영 준비과정을 마치고 문화예술거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이를 기념해 '빛의 조각 NAC'와 '오늘이 오늘이소서' 전시와 각종 행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빛의 조각 NAC'는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생태를 만들어가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한다.

남원에서 오프라인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을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평면적 디지털 아트를 뛰어넘어 인터랙티브 XR 기술이 사용돼 상호작용하는 확장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오늘이 오늘이소서'는 국내 작가 98명과 해외작가 40여명 등 18개국



남원아트센터 개관 전시작

133명이 참여하는 도예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전시로 세계 도자기의 수준 높은 도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남원아트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쁘다"며 "이 공간이 가족과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힐링 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태기자

50주년 맞은 '전북여성백일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오늘 기념식 개최·기념 문집 발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8일 대강당에서 '전북여성백일장' 개최 50주년을 맞아 당선자와 도민 15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여성백일장은 1973년 전라북도여성회관이 주최해 '제1회 주부백일장'이라는 이름으로 도내 주부들의 삶의 회노애락을 펼치는 글쓰기 장으로 시작했다. 이후 1983년 제11회 대회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들로 대상을 확대해 '전북여성백일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백일장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장르 구분 없이 진행했으나 1981년 제9회부터 운문과 산문으로 구분해 참가와 시상이 이뤄졌고, 제34회부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의 참여 부문을 확대해 한국문화와 한국어 이해 정도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풍성한 글마당이 됐다. 이번 50주년 기념식을 위해 센터는 제49회 전북여성백일장이 끝난 직후인 2021년 11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당선자 발굴과 발간된 문집 수집에 중점을 두고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87명의 당선자 명단과 발간된 문집 총 38권 중 1984년에 발간된 백일홍 2집을 제외한 37권의 문집을 확보했다.

더불어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당선자 중 약 40여 명이 월간문화, 문예시조, 수필과비평 등 다양한 문단에 등단하여 작가로 활발하게 활

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 양귀자 씨가 1975년 제3회 주부백일장 당선자다.

또한 센터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북여성백일장 50주년 기념 문집도 발간했다. 전북여성백일장 연혁, 기록과 사진, 역대 수상자 명단 및 발간 문집, 문학동인 글벗 회원 등단 및 수상 내역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강당 로비에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신이었던 여성화관 시절 발간한 문집 '백일홍'과 1978년 백일장 당선자들이 모여 창립한 문학동인 글벗이 1986년부터 발간한 동인지들을 모아 전시한다. 이와 함께 글벗 회원들이 참여한 시화전도 11월 4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전정희 센터장은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과 문화 활동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전북여성백일장이 뿌리 내린 지 50년을 맞이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북 여성의 자부심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50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한이 자리가 굴곡지고 얼룩진 그리고 때로는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한바탕 놀이마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여성백일장 역대 당선자 명단과 발간 문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ESG 관광프로그램 협업... 내달까지 '전북가치여행' 프로젝트

전북문화관광재단, 롯데백 전주점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24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환경인플루언서 클린하이커스와 함께 2022 전북가치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명산 및 물레길 등을 대상으로 총 6회 플로깅(트래킹 + 청소)을 진행 현장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활용해 정크아트를 선보이는 전북형 ESG 관광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지역상생의 목표를 가진 도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ESG 실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

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RE: EARTH 플로깅 키트 100개를 제공하고, 향후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에 친환경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캠페인 등 재단과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박소연 리더는 이번에 진행된 한복 줄기 프로그램에 참여 후 "앞으로도 전라북도 유일의 백화점으로서 관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및 기관 참여형 ESG 프로그램과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전북형 ESG 관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배유경 싱글 미니 앨범

전주공예품전시관, '추(秋)천상품' 실시간 소통 판매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이 28일 오후 2시 '추(秋)천상품'을 테마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 나선다.

이번 실시간 소통 판매 상품인 '추(秋)천상품'은 현재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에서 진행하는 기획한진 공예품이다.

이날 판매하는 추(秋)천상품 공예품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3호 안시성 부거리옹기장의 △주병(옹기장 세트, 제43호 이종덕 방짜유기장의 △유기수저세트 등 공예품 6종이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실생활에 활용성이 높은 공예품으로 구성된 '추(秋)천상품'은 한국적 멋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경소재로 제작돼 선물용으로도 좋다.

상품가격은 합인율이 적용돼 '자수노트(책갈피) 37,800원, 紙 THE ART 크로스백 71,100원, 방짜유기 찬기세트 108,000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생방송 중 구매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혜택은 라이브 특가, 포장 서비스 택배비 무료, 사은품 증정까지 총 4가지 혜택이다.

실시간 소통 판매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전주공예품전시관'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순창발효테마파크서 '문화누리 문화의 길' 행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29일 순창 발효테마파크 광장 일대에서 '문화누리 문화의 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문화누리 문화의 길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인식 개선 및 카드 이용자의 문화 향유를 위해 기획한 열린 행사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내 예술작가 및 인디스트가 마련한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북지역 수공예 및 문화 체험 관련 소상공인

30여 팀이 진행하는 청년 체험 마켓, 어쿠스틱 밴드 합기·효자동 그루브 등으로 구성된 청년 버스킹 공연, 간단한 게임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 휴식 컴퓨터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2회차 문화의길 행사는 실버미미크 전북권 'edia 및 眞과 연계해 실버예술인들의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위해 청년 체험 마켓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구입 후 영수증을 인출하면 재단 운영 부스에서 특별한 선물 제공과 아로마 테라피 체험, 도자기 풍경 만들기, 팬시우드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